

“도움 되겠지” 보내나 주변환경 나빠 걱정

날마다 밤 12시쯤 고2, 중3 두 딸이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두근거린다.

아이들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옆드려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자리에 없을까 하는 걱정을 불러가며 독서실 문을 밀친다. 어젯밤엔 두아이가 모두 잠자고 있었다.

나는 옆자리 학생에게 방해가 될까봐 살며시 두 딸을 깨워 “집에 가서 공부하자”며 주섬주섬 책을 챙겨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왜 굳이 독서실을 고집하는 걸까. 집에서 공부하면 훨씬 편하고 좋을텐데...

순전히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서실은 공부·성적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비인간적인 장소이다.



방 명 희 <주부>

아이들 세대의 ‘독서실 선호관’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독서실에 보내는 나 역시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된다.

동네마다 늘어선 독서실보다는 학교 독서실을 개방해 수업

이 끝난 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밤늦게까지 학교 독서실을 개방하려면 학교쪽에서 여간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부모들 입장에선 안심도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독서실 주변에는 오락실, 만화가게들이 있고 술집이 있는 곳도 많다. 이런 주변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된다”는 말을 믿으면서도 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독서실 주변환경도 좋아져야겠지만 독서실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학교에서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게 부모의 바람이다.

공부하는 학생보며 자극...더욱더 열심히

우리 학교는 정확히 오후 5시 10분이면 학교수업이 끝난다. 많은 학교들이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 학교는 학교에 남아 하는 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각자 공부를 위해 집으로, 학원으로, 독서실로 가게 된다.

나는 집에 오는대로 저녁밥을 먹고 곧장 독서실로 향한다.

올 여름 방학때부터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집에선 마냥 TV와 라디오를 접하는데 비해 독서실에서는 라디오도 듣고 싶은 프로그램 정해서 듣고, 잠시 탄생각이 나서 옆을 보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자



김 명 희 <숙명여고 2년>

극이 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독서실에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외출시간까지 생활지도교사가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공부하는 분위기’에 젖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다니는 독서실은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까지 공부하면 혼자 집에 가는 게 겁이나 밤 11시30분쯤 집으로 향한다.

한참 공부가 잘되고 있는데 귀가길 위험 때문에 일찍 나와야 할 땐 속이 상하기도 한다.

밤 늦게 집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독서실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적어도 두세달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집에 공부방이 따로 없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처럼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건전한 독서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